

소비자

폭설·강추위 덕에… 유통업계 ‘반짝 특수’

내복·스노우체인·전기요·부츠 판매 크게 늘어

핫팩 인기… 호빵·오뎅 등 겨울간식도 매출 급증

“추워야, 고맙다.”

광주·전남지역에 강작스런 폭설과 강추위가 이어지면서 유통업계가 ‘반짝 특수’를 누리고 있다.

6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광주·전남 지역에도 대설주의보가 발효되는 등 강추위가 지속되면서 지역 유통업계에서 겨울용품 판매가 급증했다.

광주 지역 이마트 5개점(광산·광

주·동광주·봉선·상무)에서 지난 1~5일까지 판매동향을 살펴본 결과 스노우 체인 판매량이 약 29% 증가했다.

전기요(24%), 전기매트(18%) 등도 같은 기간 매출이 늘었다.

특히 이번 겨울에는 한파와 폭설이 잦을 것이라는 기상예보가 이어지면서 내복이 잘 팔리고 있다.